

광주시, 자치구와 함께 폭염 특별대책 추진에 총력

무더위쉼터 1천548곳으로 확대, 재난도우미 2천80여 명 운영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부 매일 전화 확인 등 특별 관리

광주시는 지난 2일 폭염경보가 처음 발효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한다.
시는 올 여름이 평년 기온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농·축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자치구가 함께 폭염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우선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될 수 있

도록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더위쉼터를 1천548곳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에 냉방비 3억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사, 생

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 2천8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고,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전화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인명피해가 없도록 확보 기간 중 매일 안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열선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극락교~송정역 구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설치한 4km의 도로살수장치와 다중밀집지역 주변 도로 273.45km에 살수차를 총 동

원해 아스팔트 열기로 뜨거워진 도로 온도를 낮추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근처에는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462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 기간 온열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4곳과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박남언 시 시민안전실장은 "폭염 피해 환자 대부분이 실외 작업장이나 길가, 논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전남교육 대전환' 위한 현장 발걸음 본격화

중·고 교장 연찬회 주민직선4기 전남교육방향 공유

주민직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과 함께 '전남교육 대전환'의 여정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앞장서 실천할 현장의 발걸음도 본격화됐다.

간을 마련해 자리에 함께한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학교장들이 제안

한 다양한 의견들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와 도교육청 실무 부서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남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며, 교육 현장을 총괄하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중등교장협의회는 학교장 연찬회와 함께 학교경영 컨설팅 지원, 컨설팅 자료집 발간, 위기 학교 지원 활동, 교육혁신 간담회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 폭염 축산분야 피해 방지 온힘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예방사업비 100억 투입

전남도가 여름철 폭염, 태풍, 호우 등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 분야 하절기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을 제작해 축산농가에 배부했다. 기상 특보 발생 시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가축 폐사가 발생하면 축산농가가 지체 없이 시군 축산부서나 전남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신고해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음섭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용집 시의회 의장, 주정민 위원장과 함께 '광주의 미래 혁신에 담았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지역은 지난 6월 27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올여름 예년보다 덥고, 국지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며, 태풍도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5일까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 규모는 총 13호 3천326마리다. 축종별로 오리 5호 1천700마리, 닭 4호 1천600마리, 돼지 4호 26마리다. 추정피해액은 2천40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폭염 피해가 12일 일찍 발생했다.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꾸려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피해 예방 사전 점검, 재해 특보 발효 시 비상 근무 체제 유지, 신속한 피해 상황 접수 등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처한다.
축산 농가의 피해 예방 활동 동참을 위해 여름철 재해 유형별 축사 및 가축 관리요령 홍보인쇄물 5천

이와 함께 전남도는 축산 분야 선제적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 5개 사업 100억 원을 편성, 적기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60억 원, 가축 재해 대응 축사시설현대화 10억 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4억 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도포 시범사업 6억 원, 돼지 사료효율개선제 10억 원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종 재해 예방요령을 숙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 시 상황에 맞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 재해 피해 예방 5개 사업에 496억 원을 지원한 결과,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마릿수가 2018년 97만 1천 마리에서 2021년 6만 2천 마리로 94%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용운 기자

함평 HAMGYEONG

함평産 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미나 방호박 Sweet Pumpkin

비쌀 Premium